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8.(수) 11:00 < 12.29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28.(수)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	책임자	과 장 박재정 (044-203-4030)
		담당자	서기관 이민호 (044-203-4017)

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

- 「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」 제14차 간담회 개최 -

-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 협업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 「**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**(단장: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)」**은 12월 28일(수) 무역센터**(서울시 강남구 삼성동)**에서 화장품, 의류,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**를 개최하였다.

< 제14차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요 >

■ **일시 / 장소** : '22.12.28.(수) 14:00~15:20 / 무역센터(서울 강남) 51층 소회의실

■ **참석자**: **(정부)**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농식품부, 복지부, 고용부, 관세청
(수출지원기관) KOTRA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
(기업) 와이아이씨, 르오에스, 서윤패부릭스, 태우그린푸드, CJ올리브영, 잇츠한불 등 소비재 업체 6개사

○ 「**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**」은 12월 13일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**으로 하여 기업들의 수출 애로 **소관부처가 직접 참여**하여 현장에서 **신속하게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**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"**최근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*** 강화에 대비해 무역환경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재 수출을 늘려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"이라며,

* (美) 반도체법, IRA 등 보호주의적 입법 제정, (EU) CBAM, 디지털전환 등

○ 상반기 중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협력,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 '23년 소비재 수출 마케팅 추진 사업 >

① **(1무역관 1유통망 협력)** 해외 현지의 주요 유통망에 우리 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인증지원, 인플루언서 마케팅, 상담회 등 지원(약 2,700여개사 지원)

② **(국내외 전시회)**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 매칭, 상담회 개최, 기업 홍보 지원

- **(한류박람회)** 한류 스타 콘서트와 연계한 전시회 개최('23년 上, 해외)
- **(소비재 수출대전)** 400여개사가 참가하는 대형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(4월, 서울)

③ **(소비재 파워셀러 육성)**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성장 지원

- Amazon(美), Shopee(아세안), Qoo10(日), Tmall Global(中) 등에 600개사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재 기업들은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**▲자금부족, ▲해외인증획득 어려움, ▲위조품 유통 등에 대한 지원**을 건의하였으며,

○ 이와 관련하여 **농식품부, 복지부, 고용부, 관세청 등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해소 방안을 제시**하고,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추가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다.

< 주요 수출애로 해소 지원 사례 >

- 지속적인 **정책금융 지원 및 지원 요건 완화 필요 (A사, B사)**

  → **무역보험공사**는 A사에 대한 **수출신용보증(선적선) 한도를 증액하였으며,** 보증 만기 시 경영성과와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**추가 증액 검토**

  → 보증제한 대상기업은 **'특례인수위원회'를 통해 성장성·혁신성 등을 검토**, 특별지원 추진

- K-뷰티 경쟁력 향상을 위해 **위조품 유통 적극 대응 (C사)**

  → **특허청**은 K-브랜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**기획 침해조사 확대로 현지 위조상품 선제 단속 강화 예정**

-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**인증 취득 지원 강화 (D사)**

  → **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**은 **'해외인증지원단'을 신설**하고, 주요 인증 관련 12개 기관간 MOU를 통해 **정보제공-컨설팅-시험·평가 등 전주기 지원 예정**

-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 시, **매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 완화** 필요 **(A사)**

  → 수출액이 매출액 대비 30%이상이거나, 50억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**'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'를 운영 중인 관세청은 A사에 동 제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절차 설명**

□ 안 본부장은 “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넘어 **연말까지 수출은 6,830억불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, 무역적자 확대와 10월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상황**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”면서

○ “어제(12.27) **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수출 지원이 가장 강조**된 만큼, **무역금융, 해외인증, 마케팅 등 기업들의 3대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**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